

서귀포시 해양 수중쓰레기 “만만찮네”

연평균 40~60t 수거... 인력·예산 부족 처리난 올해 2억8000만원 투입 9~12월 집중 정확활동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상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매년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어업활동이나 레저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수중 해양쓰레기도 만만찮은 실정이다.

2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양식어장과 낚시터 등 인근의 수중에서 수거한 수중 쓰레기량은 ▷2016년 44t(양식어장 12, 낚시터 32) ▷2017년 61t(양식어장 37, 낚시터 24) ▷2018년 57t(양식어장 31, 낚시터 26) ▷2019년 36t(양식어장 7, 낚시터 29) ▷2020년 41t(양식어장 12, 낚시터 29) 등이다.

이처럼 수중에서 건져 올린 해양쓰레기의 양은 매년 40~60t 규모로 적지 않은 데다, 실제 물속에는 더 많은 양이 존재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수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2억8000만원을 투입해 페어구류, 페스티로폼, 바다로 유입된 생활쓰레기 등 해안변과 수중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나선다. 특히 도서지역과 조간대 위험지구의 수중구역에 비롯해 마을어장과 낚시터 등에 방치되거나 퇴적된 해양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올해 시가 수거해 처리할 수중쓰레기는 양식어장 18t과 낚시터 19t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간 현장탐문과 선박을 이용한 쓰레기양 조사 등 기본조사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한국어촌어항공단과의 업무 협력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과 조간대 위험지구 등의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확활동을 추진하겠다”며 “추후 폐기물 수거와 처리업체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제주지역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2016년 1만800t, 2017년 1만4062t, 2018년 1만2412t, 2019년 1만6112t, 2020년 1만6072t 등으로 연 평균 9.2%씩 늘고 있다. 이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용도 지난해 75억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백금탁기자

서귀포시 남원 태흥2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

서귀포시가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상지는 남원을 소재 태흥2지구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5만200t 규모의 저류지 시설 1개소와 배수로 720m 정비, 급수관로 4.3km 교체 등이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FTA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지난해 선정됐고,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완료에 따라 하반기 세부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상지 30ha 이상으로 사업 수혜 농가들이 5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할 예정인 지구를 대상으로 송·배수관로, 배수로, 경작로 포장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해 과수 생산 거점으로 육성 지원한다.

이에 시는 내년까지 2년간 태흥2지구의 70ha에 32억원(국비 26, 도비 6)을 투입해 저류지 시설, 배수로 시설, 급수관로(L=4.3km) 교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태흥2지구는 감귤을 주로 재배하는 과수단지로서 집중호우 시 배수 불량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은 물론 급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교체로 원활한 용수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유명 맛집 앞 우산 행렬 24일 계속되는 비날씨 속에 서귀포시 한림읍의 한 음식점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우산을 쓴 채 가게 앞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삼다수·제주용암수 해외시장 공략 박차

미국 한인사회 집중 유통 오리온, M시장 공략 착수

제주 ‘삼다수’와 오리온 ‘제주용암수’가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삼다수 수출물량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국가별 맞춤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중국 수출을 2년 만에 재개하는 등 베트남과 대만, 홍콩, 괌,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25개국에 삼다수를 수출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본격적인 미국시

장 진출에 나섰다. 미국 서부권(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등)을 중심으로 현지 주요 레스토랑과 한인사회를 공략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준수하기 위해 해외수입 검증프로그램(FSVP)을 취득했다. 이런 노력에도 삼다수 미국 수출 시장 확대는 힘겹다. 삼다수 수출실적은 2020년 7178t, 올해 상반기까지 3695t이다.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지난 2020년 3월 제품 출시 3개월 만에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후 중국과 베트남 공략

에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중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것은 자국의 수질을 신뢰하지 못한 중국인이 늘면서 생수를 마시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에서는 ‘오리온 제주용암수’(현지명 하오리우 룽엔취엔)이라는 제품명으로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 2030세대 직장인들이 모여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통하고 있다.

오리온 제주용암수는 지난해 1254t(8억원)을 수출했으며, 올해 7월말까지 1만5122t(62억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귀농·귀촌 기본교육생 선착순 60명 모집

제주시, 3일까지 온라인 접수

제주시는 (예비)귀농·귀촌인들의 농촌 정착 안정화를 위해 제2기 귀농·귀촌 기본교육생 6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농업인 중 온라인 화상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청 기간은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온라인(center2865@naver.com)으로 한다.

교육은 제주시 귀농·귀촌 유치지원센터 주관으로 차수별 3회에 나누어 12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차원에서 화상교육(ZOOM) 언택트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대상 인원은 총 60명으로 차수별 20명씩, 2일간 7과목을 운영한다. 교육과목은 제주문화 이해를 비롯 ▷귀농인 창업자금 ▷농업경영체 등록 ▷노지갈골 재배기술 ▷원예작물의 텃밭가꾸기 ▷귀농·귀촌사례 ▷제주 농업현황과 친환경농업의 이해 등 7개 과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제주시 귀농·귀촌 유치지원센터(064-728-28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마을활력과 관계자는 “제주에 정착을 원하는 많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양질의 영농정보를 제공해 안정적인 제주 생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불법 미신고 숙박영업행위 갈수록 교묘

민박 신고된 건물 옆 무허가 건물 증축 숙박 이용 공동주택 여러 호실 빌려 임차인이 영업하다 적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을 이용한 불법 미신고 숙박영업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가 올해 들어 지속적인 단속과정에서 불법영업 적발 사례는 다양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SNS 등을 이용 객실을 홍보하면서 숙박요금을 받는 형태뿐만 아니라 민박 신고된 건물 옆에 무허가 건물을 증축해 불법영업하는가 하면 공동주택에서 여러 호실을 임차한 임차인이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홍보·모객하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구좌읍 소재 한 민박업소는 민박 신고된 건물 옆에 무허가 건물을 증축,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에어비엔비를 통해 객실을 홍보하고, 1박당 5만원의 요금을 받으며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 숙박업이 불가능한 공동주택에서 여러 호실을 임차한 임차인이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모객행위를 하며 숙박업을 한 사례도 있다.

읍 지역의 한 민박업소에서는 민박신고된 객실 외 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물을 이용하거나, 생활형숙박 시설의 건축물 용도에서 숙박업 영업신고 없이 SNS(에어비엔비)를 통해 불법 영업하다 단속에 걸렸다. 심지어 지난해 적발돼 고발조치된

업소 중에는 올해 다시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갈수록 불법영업 행위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적발 건수도 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88개소(고발조치 62건·행정지도 126건)를 적발한데 이어 2020년에는 231건(고발조치 90건·행정지도 141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이달 18일 현재 적발건수는 153건에 이른다. 이달 23일 도 자체 경찰청 및 관광협회 등과 함께 합동 점검에서도 단독주택에서 불법업무를 하다 적발됐다.

시 숙박업소점검TF는 1주일에 3회 이상 점검에 나서고 있으나 투숙객들의 거짓 진술로 숙박 운영여부 확인이나 비대면 투숙 형태로 인해 운영자 파악의 어려움 등 단속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의 공동현관에 비밀번호가 설정돼 접근하기 어렵고,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이 SNS 등을 통해 다수 홍보가 되고 있으나 호수를 특정할 수 없어 모니터링 및 점검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불법 미신고 숙박영업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뿐만 아니라 만일의 경우 안전사고에도 취약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단속과 함께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윤형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연작장해 토양 소독 살균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인효과 높은 저항성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O.M **코코리** 검색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